

제 목 : 9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행복의 마스터키를 찾았다 !!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나에게로의 경력단절의 시작>

화려한 싱글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다 누리며 지낼 줄 알았던 나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조금 늦게 찾아온 결혼을 시작으로 평범하게 시작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찾아온 경력단절의 시간, 현재 벌써 9년째이다. 첫아이가 24개월쯤 되었을 때 둘째아이가 우리가정에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면서 나에게 아이를 다시 갖는 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탓인지 나름대로의 첫아이만 잘 키우자 라고 생각했다. 5살쯤 되었을 때 아이도 어린이집 생활을 잘해주고 있으니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집 근처 동부여성가족원에 가서 한식 요리 자격증 반에 등록하여 재미있게 배우게 되었다. 아마 그때 만해도 그동안 내가 일했던 관련 직종보다는 내안에 다른 나를 찾아보기 위해 새로운 걸 찾았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생각지 못하게 둘째가 다시 선물로 우리 부부에게 왔고, 나는 다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양육을 하면서 본인의 아닌 경력단절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제대로된 우리 가정의 현실점검>

지금은 큰아이가 10살, 둘째가 5살. 그동안의 나를 찾고 싶었던 갈망이 컸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책 속에서의 간접경험 내용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장 마인드를 키우고 있었고, 워킹맘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편으로는 나의 능력으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엄마였던 모양이다. 어렸을 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나에게 가정형편 때문이었는지 부모님은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던 게 내가 만약 아이를 양육한다면 많은걸 경험케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다.

‘그래! 나도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보자’

‘그런데...명진아...너무 막연해. 뭐부터 해야하지?’

일단 이런저런 생각으로 약간은 낯설어진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다.

‘무엇을 검색해볼까? 잡코리아? 워크넷?’

각종 취업사이트를 알아보고 직장명을 보았지만 내안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생활로의 도전은 큰 바위덩이가 앉아있는 듯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이라고 검색해보니 눈에 띈 건 대전광역시여성새로

일하기센터였다.

그래, 일단 전화부터 해보자! 하며 연결된 곳은 거주지와 가까운 대전배재대ICT융합새일센터였고, 총괄팀장님의 친절한 안내로 나의 취업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다.

새일센터의 구직신청과 함께 진로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MBTI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종과 적성도 다시 알게 되었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으며 직업교육도 추천해 주셔서 3개월 과정인 'IP-R&D 특허전문가 과정' 수업을 참여해 보기로 결심하고 하루하루 수업에 임하기 시작했다. 항상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것, 정보 얻는 걸 좋아하는 나의 성격 때문인지 전공과 다른 분야라서 내용이 어렵고 생소하긴 했지만 함께 배우는 동기생들과의 같은 마음이 합쳐져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도움 받을 때 받아가며 즐겁게 생활하는 날들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센터분들의 교육생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는 다짐도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배운 걸 녹여서 조별로 발표하는 경진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더 집중하는 나날이었던 거 같다. 특별히 교육생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실습,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했던 것도 인상이 깊었으며, 구인업체 인사담당자분들이 센터에 직접 오셔서 면접을 보니 긴장되는 부분도 훨씬 적었다. 수업 마지막 날 경진대회가 다가오면서 조원들끼리 의견을 모으기, 수업이외의 시간을 맞춰 자료 취합, 각자의 발표연습 등의 시간에도 센터 팀장님의 관심과 배려로 충분히 사기진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발표날!!!!

연습했던 걸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마음으로 조원들의 발표가 끝났을 때는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 알았고, 경험만큼 소중한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내가 만약 센터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소중한 분들과의 인연이 닿았을까? 무엇보다 중요한건 만남의 복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다. 조원들끼리 서로 우린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만족하자 하면서 기다리는 중 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결과에 만족했고 앞으로의 서로의 길에 축복을 해주자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면접의 기회>

시원섭섭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사용하는걸까? 센터와 그동안 정들었던 관계에서도 동기교육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막막함도 살짝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럴 때 아! 나도 찾아야 하지만 센터분들도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었고 믿고 기다린 만큼 드디어 나에게 찾아온 면접의 기회!! 총괄팀장님의 소개로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면서 다짐했던 단 한 가지! 자신감을 배웠으니 그 자신감으로 있는 그대로 당당한 내 모습을 보여드리자! 사업장에 가기까지 운

전하면서 했던 건 자연스럽게 웃는 연습과 긍정의 마인드를 끌어올리기 위한 성공자들의 음원듣기와 흥얼거리기였다. 사업장에 도착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직원의 안내로 이사님과 면접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했던 나의 업무 내용부터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을 말씀드리고 회사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하는 식의 면접이 이어졌다. 현재는 금산에 위치해 있지만 대전으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기에 원거리임에도 출근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드렸고 부족한 부분은 성실히 배워보겠다고 자신감도 어필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 책속의 이야기들이 나에게 접목이 되는 날이었던가?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겠느냐는 이사님의 질문으로 취업이 확정되는 날 마치 가뭄이 시원한 단비로 해결되는 듯 가슴이 벅차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꿈을 향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더욱이 감사했던 건, 그동안 기도했던 나의 기도응답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주40시간 근무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했던 이유 중, 첫째는 현재 주말부부로 남편이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주중 아이 케어는 내 몫이기 때문인 것과 둘째는 6시 이후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이 불안해하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였다. 업무량과 업무의 난이도는 경력을 바탕으로 인수인계를 통해 익힐 수 있었으며 하루하루 나를 위한 성장의 시간과 그렇게 원했던 경제적인 부분이 채워지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한 가지를 더 채워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남편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아내라서 기뻐고 아이들 양육과 가정에 더 충실한 내가 되어 가고 있는 거 같다.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 받는 동안 큰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엄마는 왜 다시 학교에 다녀요?”

“음.....엄마가 공부하면서 일할곳을 찾으려고 해”

“우리집 가난해요?” “아빠가 일하시는데 엄마도 해야해요?”

“음...은호는 가난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

“집이 별로 좋지 않고 돈이 없어서 먹을 걸 못 사먹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생각이 조금 달라. 엄마는 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엄마는 엄마의 꿈을 찾고 싶은 마음이 큰 거 같아. 엄마의 꿈은 엄마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을 계발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에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그런 모습을 너희에게도 보여주고 싶거든. 또 너희들과 많은 곳을 다니며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며 너희들의 꿈도 찾아주고 싶고. 엄마가 돈을 벌면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니까. 도전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만큼 안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럼 엄마도 엄마의 꿈을 찾아가는 중이네요?” , “그럼 나도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요..”

진짜 행복의 마스터키는 내가 가지고 있으며 그 또한 내가 열 수 있다는 것.

하루의 루틴이 정해지면서 부지런한 삶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늘어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나날 인것 같다.

<막막하고 두렵다면 새일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경력단절여성들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는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인거 같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 두려움을 깨는 건 본인 자신이지만 새일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며 기다리는 것보단 적극적으로 나서 조언을 구하거나 검색하며 알아보는 습관이 중요한 거 같다. 가장 큰 수혜자가 나인 것처럼 방향설정이 어렵다면 센터의 전문상담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싶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회는 찾아오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옴을 믿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아이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엄마여서 또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의 행동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원동력인거 같아 재취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다.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면접에 참여했던 모습>

